



# 암 이겨내고, 제2의 조국 위해... 불굴의 '금빛 도전'

## U대회 참가 선수들 다양한 사연

광주U대회에는 암을 이겨낸 선수가 출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태권도 한국 대표팀 인교돈(24·한국가스공사)과 벨기에 육상10종 국가대표 토마스 플레센(25)이다.

인교돈은 지난 2011 중국 선전U대회 태권도 겨루기 87kg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다시 도전한다. 그는 고교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1위를 석권, 주목 받았다. 하지만 2014년 악성 종양(림프암) 진단을 받았다. 인교돈은 다시 태권도를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인교의 시간을 버텼다. 항암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U대회 대표 선발전을 거쳐 합류, '금빛 발차기'를 노린다.

플레센은 2009년 유럽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벨기에 선수 최초로 10종 경기 정상에 오르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2011년 유럽 23세 이하 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2013년 러시아 카잔U대회에서도 우승해 승승장구하던 플레센은 지난해 9월 고환암 선고를 받았다.

암 치료 때문에 탈모 증세를 보이면서도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그는 이번 대회에 출전해 유니버시아드 2연패를 노리고 있다. 플레센은 "이번 대회에서 8000점 이상을 얻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8100점을 넘기는 것이 목표"라며 "2013년 금메달을 따낸 U대회에 다시 나가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육상 선수 헤일 이브라히모프(25)는 귀화 선수로 대회 2연패를 노려 주목을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 출신인 그는 훈련 도중 부상을 입었으나 에티오피아 육상연맹에서는 진통제만 제공할 뿐 치료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년 아제르바이잔 국적을 취득했다. 그해 유럽 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5000m와 10000m 금메달을 따낸 이브라히모프는

태권도 인교돈·10종 경기 플레센

림프암·고환암 극복 2연패 노려

에티오피아 출신 이브라히모프

아제르바이잔 국적으로 육상 출전

수영복 모델 세계적 핫바디 인기

호주 허들 대표 미셸 제네커 주목

2010년 유럽육상선수권대회 동메달을 획득하며 '제2의 조국'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2013년 카잔 유니버시아드에서도 5000m 우승을 차지한 이브라히모프는 올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유러피안 게임에서도 1500m와 5000m를 휩쓸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5000m 9위에 그쳐 아제르바이잔 육상연맹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유니버시아드 2연패를 노린다.

또 호주의 허들 선수 미셸 제네커(22)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그는 세계가 반한 '핫바디'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미국 스포츠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 수영복 모델로 나서 몸매를 뽐냈던 제네커는 올해 초 브리즈번에서 열린 호주육상선수권대회 허들 100m에서 12초82로 2위를 차지하며 이번 대회 입상 가능성을 밝혔다.

2012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같은 종목 5위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제네커가 이번 대회를 통해 외도와 기량을 겸비한 선수로 거듭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황교안 총리 선수촌 점검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을 찾아 윤장현 광주시장(U대회 공동조직위원장)과 함께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YB·알리·샤이니·포미닛·EXID·걸스데이...

## K-POP 그룹 총출동 전남대운동장서 전야제

오늘밤 10시~11시 30분

광주 U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K-POP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전야제 행사가 열린다.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야제 행사는 U대회 조직위가 후원하고 주관방송사인 KBS가 주관하며 '뮤직뱅크' 특별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한상현 아나운서와 그룹 '걸스데이'의 민아와 유리가 공동 진행을 맡으며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익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타악그룹 진명, YB, 로맨틱 펀치, 알리, 샤이니, 포미닛, EXID, 걸스데이, 방탄소년단 등이 출연한다.



걸그룹 EXID

광주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광주U대회가 '전 세계 대학생 올림픽'인 만큼 대회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K-POP 가수의 무대,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통해 대회 개막에 앞서 관람객들에게 열광과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

## 광주 도심 'U대회 손님맞이' 녹색숲 마무리

### 2013년부터 경관숲·정원 35곳 조성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둔 광주의 도심이 녹색 숲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시는 하계U대회에 대비해 지난 2013년부터 연주체육관 등 경기장 주변과 나들목 등 주요 관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66억원을 들여 경관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에는 연주체육시설지구 경관숲 등 6곳을, 지난해는 화재로변 경관숲 등 23곳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진월국제테니스장 주변 커뮤니티

정원 등 6곳에 조성을 마쳤다.

광주시는 대상지 선정부터 수종 선정,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위해 교수, 시민단체, 공무원 등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 민선6기 중점사업 중 하나인 도시정원의 패턴을 새로 도입해 시가지 경관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진월 국제테니스장 주변 힐링경관숲은 도시정원의 대표 사례. 진제초교 앞 경각지와 도로 절개지로 방치됐던 공간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심 속 정원으로 변신시켰다.

/특별취재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1일 힙합공연 'Mnet 힙합 레볼루션' 13일 '피크닉 록 페스티벌'

### ▶1면 '축제의 광주'서 계속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함께 깊어가는 여름밤을 수놓을 음악 축제 '광주 피크닉 뮤직 페스티벌'은 8~13일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라라세션, 김보경, 허각, 김필 등 Mnet 슈퍼스타K6의 주역들이 참여하는 '슈퍼스타K 콘서트'가 8일 오후 8시 행사의 포문을 연다. 이어 9일 오후 6시에는 샤이니의 Key와 씨엔블루의 이정신의 사회로 진행되는 Mnet 'M카운트다운'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아이돌 17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소울로지, 어나더시즌, 조용훈과 가까운 사이, KON&집사카라반, 윈터플레이가 출연하는 '한여름 밤의 블루스&재즈 콘서트' 무대가 마련돼 있고, 11일에는 매드클라운, 바스코, 언프리티랩스타 멤버들의 힙합공연 'Mnet 힙합 레볼루션'이 준비돼 있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피아, 데이브레이크, 소란 등이 출연하는 피크닉 록 페스티벌이 펼쳐져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밖에 웰컴 게이트, 월드 피크닉 푸드존, 피크닉 미디어아트 등 상설 프로그램과 피크닉 아트 플리마켓(벼룩시장), 피크닉 버스킹 콘서트 등 주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3~12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일원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와 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스포츠놀이 축제 '하우 펀'(How fun)이 열린다.

아시아스포츠놀이 '어린이놀이올림픽', 스포츠 과학놀이 '오케이! 고!', 운동화보급프로젝트 '꿈을 향해 달린다', 스포츠공작놀이 '온니월', 주말특별강연 '나랑 놀자', 비밀공간 만들기 '비밀기지', 어린이활동단 '키위' 등 모두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별취재단=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한지적공사의 새로운 출발

# UX 한국국토정보공사

2015년 6월 4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대한지적공사  
국토정보를 아우르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평면적인 지적정보에서 입체적인 공간정보에 이르기까지  
국민과 함께 한 차원 높은 국토정보를 만들어가겠습니다